

연구논문

청소년 자살충동 요인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What are the Risk Factors?

최정원^{a)}, 박민진^{b)}

Jeong Won Choi · Min Jin Park

본 연구는 2015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10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청소년 자살에 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의 요인을 크게 개인, 유대,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고 각 변인에 해당하는 설문문항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변수 중 개인적 변인, 특히 응답자들의 마약 및 본드 흡입경험 여부가 자살충동 위험도를 가장 높이는 제 1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던 스트레스의 위험성 역시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의 위험성에 무게를 두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학업, 친구, 신상 관련 스트레스에 비해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더 자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청소년 자살문제를 공공부문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유해물질 입수경로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차단 노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10대 중·고등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지금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부연구위원
최정원.

E-mail: doccjw@si.re.kr

b)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주제어 : 청소년 자살충동, 스트레스, 유해물질 흡입,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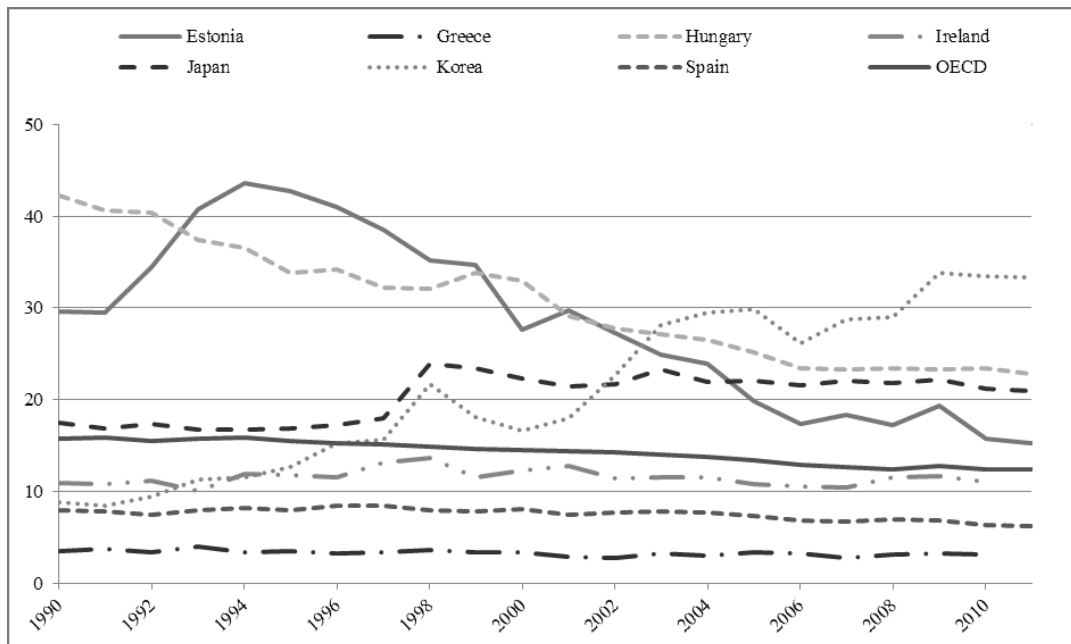
This paper analyzed factors provok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using the 2015 survey on Korean Child-Youth Wellbeing Index. After reviewing a wide range of research on adolescent suicide, we identified four types of risk factors provoking suicidal ideation, they being personal, relational, stress-related, and academic ones.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we tested the extent to which each risk factor provokes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Of all, personal risk factors, especially exposure to prohibited substances, provoked suicidal ideation more than others. The influence of stress-related risk factors, as was the case in other research, was confirmed in our study as well. The difference, however, lied in the sources of stress: in our study, parents-driven stress, compared to school-, friends-, or appearance-driven ones, was more detrimental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Preventing adolescent suicide, accordingly, calls for both institutional efforts to keep teenagers away from substance abuse and parental efforts to become a reliable buffer against, not the source of, stress for their children.

Key words : Korean Child-Youth Wellbeing Index,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stress, substance abuse

I. 서론

통계청의 최근 사망원인통계 발표자료(2015)에 따르면 자살은 암,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다음으로 한국인의 사망을 주도하는 4대 사인(死因) 중의

하나로, 2014년 한 해 총 13,836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사망률로 따지면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로 사망한 셈이다. 비록 2014년의 자살인구와 사망률이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각각 4.1%, 4.5% 감소하였다고 하나 한국의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고 이는 국제 비교를 통하여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림 1>은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 사이의 자살률 추이를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비교한 그래프이다. 전체 회원국 중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로 줄곧 1위를 차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전체의 평균 자살률이 감소하는 동안 한국의 자살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림 1〉 OECD 회원국들의 자살률 추이 1990-2011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자살이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령별 3대 사인(死因) 순위 집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은 10대부터 50대 사이 모든 연령 집단의 사망을 주도하는 3대 사인(死因) 중의 하나로 특히 20대, 30대에서는 사인(死因) 1위를, 그리고 10대, 40대, 50대에서는 사인(死因) 2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국이 사회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대 다수를 병리적 질환이 아닌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잃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이 그만큼 자살충동에 쉽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처할 수 공공대응 기제(public counter-measure)또한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1> 2014년 연령별 3대 사인(死因)

연령	1위			2위			3위		
	사망 원인	구성비 (%)	사망률	사망 원인	구성비 (%)	사망률	사망 원인	구성비 (%)	사망률
1-9	악성 신생물	17.8	2.1	운수사고	10.5	1.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9.5	1.1
10-19	운수 사고	26.2	4.8	고의적 자해 (자살)	24.7	4.5	악성 신생물	14.3	2.6
20-29	고의적 자해 (자살)	45.5	17.8	운수사고	15.4	6.0	악성 신생물	10.6	4.1
30-39	고의적 자해 (자살)	36.9	27.9	악성 신생물	19.5	14.7	운수사고	7.8	5.9
40-49	악성 신생물	29.3	48.6	고의적 자해 (자살)	19.5	32.4	간질환	7.9	13.2
50-59	악성 신생물	38.8	144.6	고의적 자해 (자살)	9.8	36.4	심장질환	7.9	29.3
60-69	악성 신생물	44.1	344.4	심장질환	8.6	67.1	뇌혈관 질환	7.7	59.8
70-79	악성 신생물	35.1	827.1	뇌혈관 질환	10.5	248.5	심장질환	9.9	234.6
80 이상	악성 신생물	17.3	1,490.8	심장질환	11.9	1,027 .2	뇌혈관 질환	10.8	925.1

출처: 통계청 (2015). 2014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살 예방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살행위의 가장 중요한 가늠쇠라 할 수 있는 자살충동의 메커니즘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살충동 혹은 자살 생각은 이미 기존연구를 통해 자살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이 확인돼 왔다(Gould et al. 2003; Reinherz et al. 2006; Keane et al. 1996; Lee et al. 2009; Portes et al. 2002; 남영옥 2013; 박은옥 2008). 자살에 대한 충동과 생각이 반드시 자살이라는 행위를 야기하는, 즉 생각과 실천 사이의 인과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자살 생각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일관된 주장(Reinherz et al. 2006; Lange 2003; 박은옥 2008)은 자살 생각 혹은 충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자살 위험군(危險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원론적 자살예방책에 비해 더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10대의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살충동과 생각에 더 취약함을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결과(2014)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충동을 가져본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8%로, 20대의 7.7%, 30대의 7.6%, 40대의 6.1%, 50대의 7%, 그리고 60대 이상의 5.2%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4년 전국 14~19세 남녀 중·고등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 보도자료(2014)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의 51.6%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자살 생각 혹은 자살충동을 가져보았다는 말이다.

이처럼 10대의 청소년들이 유독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자살충동에 취약한 이유는 이들이 경험하는 생리학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흔히 사춘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시기 동안 10대의 청소년들은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호르몬의 분비와 뇌 영역의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

겐 등 2차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들은 빠른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춘기를 맞은 뇌에서는 감정과 이성의 균형이 깨지는데,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뜨거운 뇌, 즉 피질하 부위(subcortical regions)는 빠르게 발달하는 반면 인지적 사고를 담당하는 차가운 뇌, 즉 전두엽 부위(prefrontal regions)는 상대적으로 더딘 발달을 보이게 된다(Blakemore et al. 2010; Somerville et al. 2010).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상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감정기복을 경험하고 이 감정기복에 대한 대응도 즉흥적이고 극렬하다. 같은 강도의 감정에 노출됐을 때 10대의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극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슬픔, 불안감, 우울 등과 같이 부정적 성향이 강한 감정일수록 10대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반응은 더 격렬해진다. 부모의 꾸지람을 들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갑작스럽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자살하였다는 뉴스들이 자주 매스컴을 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정한 감정기복, 자극에 대한 과민한 대응, 인지능력의 미성숙 등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청소년이라면 공통으로 겪게 되는 생리학적 변화 외에도 우리 사회의 10대 청소년들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오는 극심한 성적 스트레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우울증 등이다. 앞서 인용한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5%가 미래에 대한 불안, 성적 부담, 외모, 부모님과의 갈등 등의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33.2%가 평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29.1%가 최근 한 달간 심한 우울감을, 22.8%가 심한 두려움을, 그리고 22%가 심한 신경과민을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 10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이미 적신호가 들어 온 셈이다.

II. 청소년 자살충동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설명하는 데 있

어 가장 중요한 변인일까?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혹은 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스트레스의 요인과 우울증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이들의 자살충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요인은 크게 개인 및 가족 요인(가족으로부터의 학대 경험, 해체가족,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부모의 과보호 등), 학교 요인(학업스트레스, 경쟁분위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 사회문화적 요인(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영향, 사회적 차별 등), 심리적 요인(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등으로 구분된다(강대영 2014; 강주현·신택수 2015; 구차순·김동환 2013; 김경미·염유식 2015; 김미예·김정미 2013; 김보영·이정숙 2009; 김정란·김혜신 2014; 라현진 외 2006; 문대근 외 2013; 박순희 외 2015; 박은옥 2008; 송인한 외 2011; 신미옥 2014; 여지영·박태영 2013; 이홍직 2012; 정다솜 2014; 정주연·박재연 2015; 최인재 2014).

예를 들어 라현진 외(2006)는 2005년 임의로 선정한 서울과 지방의 8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이 크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어려운 일 당면 시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 자살의도가 생겼을 때 표현대상이 친구 혹은 선생님인 경우, 자살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대화가 폐쇄적인 경우와 결손가정인 경우가,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살사이트를 알고 있는 경우, 인터넷에 중독된 경우, 음주 및 약물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박은옥(2008)은 청소년의 자살시도가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건강위험행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살 생각,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이 자살시도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약물남용, 흡연, 음주 등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건강위험행위가 자살시도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 학교, 건강상태, 비만, 행복감, 성적, 부모 동거 등도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김보영·이정숙(2009)은 청소년 자살충동을 종속변인으로,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총 58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하여 청소년 자살 생각 관련변인, 위험 변인군의 효과크기, 그리고 보호 변인군의

효과크기를 파악하였다. 첫째, 청소년 자살 생각 관련변인으로서는 총 32개의 독립변인이 추출되었고 추출변인 중 개인특성별 변인군은 5개, 심리적 변인군은 9개, 가정환경적 변인군은 7개, 학교환경적 변인군은 9개,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인은 2개로 각각 구분되었다. 둘째, 청소년 자살 생각 관련 위험 변인군별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심리적 변인이었고, 사회문화적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 학교환경적 변인, 개인특성별 변인 순으로 영향력이 감소했다. 셋째, 청소년 자살 생각 관련 보호 변인군별 효과크기를 파악한 결과, 청소년의 자살 생각 관련 보호 변인군의 평균 효과크기는 개인특성별 변인군이 가장 크고 심리적 변인군, 가정 환경적 변인군, 그리고 학교환경적 변인군 순으로 영향력이 감소했다.

송인한 외(2011)는 2009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 차별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사회적 지지가 어떤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차별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있는 경우 차별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는, 즉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흥직(2012)은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인 자살충동의 수준과 독립변인인 개인적 특성 요인, 유대 요인, 정서적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에서는 성적이, 유대 요인 중에서는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정서적 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 중에는 부모, 성적, 친구, 외모,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예·김정미(2013)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의 정도가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고3 학생이 고1과 고2에 비해 우울, 강박증의 정도가 심했다. 고교 유형에 따라서는 일반계 여고가 일반계

남고, 전문계 여고와 전문계 남고에 비해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이 ‘중’과 ‘상’ 집단에 비해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정신증, 자살 생각의 수준이 모두 높았다. 또한 주관적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하’인 집단이 ‘중’과 ‘상’에 비해 우울과 자살 생각의 수준이 높았고, 주관적 외모에 따라서는 ‘불만족’ 집단이 ‘보통’과 ‘만족’ 집단보다 모든 정신건강요인, 즉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과 자살 생각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에 불만족한 집단들일수록 모든 정신건강요인과 자살 생각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구차순·김동환(2013)은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자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의 증가할수록 자살 생각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자살 생각의 하위요인인 수동적 자살욕구¹⁾, 적극적 자살욕구, 준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과 자살 생각 간의 영향관계에서 긍정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근 외(2013)는 2012년 대구지역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총 92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통해 청소년 자살 생각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자살 생각의 원인변인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 집단 따돌림, 우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변화에 대한 상황적응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집단 따돌림,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쳐 자살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1) 수동적 자살욕구는 자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인생의 가치에 회의를 느끼거나, 자살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초보적 상태를, 적극적 자살욕구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자살 생각을 이야기하며, 언제나 자살기회를 노리는 등 행동으로 표출되기 직전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준비는 유서를 쓰거나 큰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등 자살에 대한 생각을 미리 마련하여 갖춰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치며, 우울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는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지영·박태영(2013)은 서울에 소재한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학교건강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 및 학교 건강성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 역시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 자살 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비록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가족 및 학교 건강성이 자살 생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였다.

김정란·김혜신(2014)은 2012년 광주학생생활 종합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노출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학년, 가정폭력 노출(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성별, 학년,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을 독립변인으로, 자살충동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성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미옥(2014)은 경기도 안성시의 중학교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자해시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학교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그리고 성별에 따른 자해시도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살 생각 및 자해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교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자해시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미·염유식(2015)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면시간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폭력 경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 등 4개의 변인을 각각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수면시간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교폭력 경험은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하였다. 스트레스 변인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여학생의 경우는 모든 스트레스 유형이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관계 변인의 경우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관계만이, 여학생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유사하게 강주현·신택수(2015) 역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및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보호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경미·염유식(2015)의 결과와 반대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우울을 매개로 자살 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만 확인됐다. 즉, 스트레스 그 자체가 자살 생각을 유발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충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 지지의 유무는 자살충동 발생에 별다른 보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를 강조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혼합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박순희 외(2015)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울이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사이에서 어떤 매개효과를 하는지도 분석하였다. 강주현·신택수(201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대신 우울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장시간 방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앞선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10대 청소년들의 주요 자살충

동 요인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자살충동은 결코 하나의 요인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다.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정환경적 요인, 학교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10대 청소년들의 내적, 외적 조건들(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이 복합적으로 이들의 자살 생각 혹은 충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느 특정 요인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유발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들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예방과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좀 더 전략적인 정책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2>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정리

학자(연도)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라현진 외 (2006)	· 개인적 요인(자살의도 표현방법, 도움을 받고 싶은 방법 등) · 가족적 요인(가족의 해체, 가족간 대화의 폐쇄성 등) · 사회적 요인(인터넷 중독, 인터넷 자살사이트 인지 여부 및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등)
박은옥 (2008)	·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구분, 주관적 건강수준, 질병여부, 자신의 체격에 대한 인지, 주관적 행복감, 학교성적, 부모동거, 경제수준) · 건강위험행위(흡연경험, 현재 흡연, 음주경험, 현재 음주, 비만도, 체중 감소시도,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아침 식사 결식,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 주 1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안전벨트 착용, 흡입제 경험, 약물사용 경험, 성관계 경험, 수면정도,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김보영·이정숙 (2009)	· 개인특성별 변인(경제적 수준, 성별, 학년유형, 음주여부, 신체·정신 건강상태) · 심리적 변인(우울, 무망감, 생활 스트레스, 소외감, 영적 안녕감,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 가정환경적 변인(가족관계 스트레스, 친인척 및 친구의 자살시도, 가족 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 화목도, 가족 응집력, 부모의 양육 태도) · 학교환경적 변인(학교생활 스트레스, 학교 폭력, 교우관계 스트레스, 학업관련 스트레스, 학업 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적응유연성, 교사 지지, 교우관계 친밀도) · 사회문화적 변인(대중매체의 자살보도, 인터넷 중독)

(계속)

(계속)

학자(연도)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송인한 외 (2011)	· 사회적 차별 경험(통제변수: 성별, 학년, 가족구조, 주관적 경제수준, 학업성적)
이홍직 (2012)	· 개인적 특성 요인(성별, 용돈, 성적, 가계 소득수준, 부모와의 동거여부, 형제) · 유대요인(부모 유대, 선생님 유대, 지역사회 유대, 친구 유대) · 정서적 요인(화를 가라 앉히려는 노력, 개인사에 대한 관심 정도, 걱정 정도, 불안 정도, 외로움 정도, 우울 정도) · 스트레스 요인(성적, 의견충돌, 지나친 간섭, 대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모 스트레스, 학교성적, 숙제나 시험, 대학입시나 취업부담, 학업 등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놀림이나 무시, 친구들로부터의 인정의 결여, 열등감 등의 친구 스트레스, 체중, 신장 등의 외모 스트레스, 용돈, 기호품 결여 등의 경제 스트레스)
김미예·김정미 (2013)	· 정신건강요인(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구차순·김동환 (2013)	· 또래 괴롭힘
문대근 외 (2013)	· 우울, 집단 따돌림 피해, 자아존중감,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 자살 생각
여지영·박태영 (2013)	·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건강성
김정란·김혜신 (2014)	· 성별, 학년, 부부폭력 목격,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신미옥 (2014)	· 학교스트레스(학업요인, 친구요인, 교사 및 학교생활 요인)
김경미·염유식 (2015)	·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폭력 경험 변인, 스트레스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
강주현·신택수 (2015)	· 학교생활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트레스, 자기문제 스트레스, 환경문제 스트레스, 가정생활 스트레스, 외로움, 무력감, 무가치감, 가족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자살 생각(통제변인: 성별, 연령, 종교유무, 부모와의 동거여부, 학교유형)
박순희 외 (2015)	·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

Ⅲ.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의 후원으로 2015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연구를 주관하고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조사를 대행한 제 7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Korean Child Well-Being Index: KCWI)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KCWI는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와 다른 OECD 국가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비교하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로서 2009년부터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수거방식에 의한 자기 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 7차 KCWI는 2015년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표본 추출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2014년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학급을 표집 단위로 학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한 크기비례확률추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학급을 표집 단위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제 7차 KCWI에서는 총 7,536명(초등학생 2,096명, 중학생 2,611명, 고등학생 2,829명)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표본의 구체적 특성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10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에 대한 요인분석에 있으므로 전체 표본 중 초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5,440명의 중·고등학생을 실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3> 제7차 KCWI 표본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초		중		고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전체		7,536	100	2,096	100	2,611	100	2,829	100
성별	남	3,801	50.4	1,061	50.6	1,275	48.8	1,465	51.8
	여	3,735	49.6	1,035	49.4	1,336	51.2	1,364	48.2
거주지	수도권	3,498	46.4	952	45.4	1,281	49.1	1,265	44.7
	강원도	210	2.8	55	2.62	69	2.4	92	3.3
	충청권	807	10.7	254	12.1	261	10	292	10.3
	영남권	2,094	27.8	586	28	724	27.7	784	27.7
	호남권	927	12.3	249	11.9	282	10.8	396	14
지역규모	대도시	3,296	43.7	935	44.6	1,165	44.6	1,196	42.3
	중소도시	3,200	42.5	854	40.7	1,054	40.4	1,292	45.7
	읍면지역	1,040	13.8	307	14.7	392	15	341	12.1
초등학교	4 학년			667	31.8	-	-	-	-
	5 학년	2,096	27.8	707	33.7	-	-	-	-
	6 학년			722	34.5	-	-	-	-
중학교	1 학년			-	-	741	28.4	-	-
	2 학년	2,611	34.6			931	35.7	-	-
	3 학년					939	36	-	-
고등학교	1 학년			-	-	-	-	925	32.7
	2 학년	2,829	37.5	-	-	-	-	919	34.7
	3 학년			-	-	-	-	892	33.7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본 분석의 종속변수인 자살충동 경험 유무는 자살에 대한 충동 경험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1개의 문항이 존재하며 “있다” 혹은 “없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개인적 변인, 유대 변인, 학교 변인, 그리고 스트레스 변인의 4가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개인적 변인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성, 신체 건강 정도(체질량 지수, 흡연 및 마약/본드 흡입 여부), 그리고 평소 체감 행복 지수를, 유대 변인과 관련해서는 부모와의 친밀도, 학교 선생님과 친밀도, 그리고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를, 학교 변인으로는 2014년 2학기 기말 기준 등수(백분위수),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여부를, 그리고 스트레스 변인으로는 부모의 성적 다툼과 지나친 간섭, 부모와의 의견 충돌 및 대화 불통 등 응답자가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학교 성적, 숙제나 시험, 대학 입시나 취업 부담, 공부에 대한 흥미 상실 등 응답자가 학업으로부터 받는 학업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놀림 및 무시, 인정 결여, 친구에 대한 열등감 등 응답자가 친구로부터 받는 친구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의 체중, 키, 외모, 용돈, 기호품 결여 등 일신상의 문제에서 오는 신변 스트레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분석을 위해 각 변인에 사용된 조작(operationalization)은 <표 4>에 설명하였다.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 및 조작 설명

변수	사용 변수	측정 방식	조작화
종속	자살충동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예=1, 아니오=2
	성별	남자, 여자	남자=1, 여자=2
독립	신체 건강	키와 몸무게 정보를 이용한 체질량 지수, $BMI=[\text{몸무게}/(\text{키})^2]$ 계산	저체중($BMI<18.5$)=1 정상($18.5 \leq BMI<23$)=2 과체중($23 \leq BMI<25$)=3 비만($BMI \geq 25$)=4
	개인적 변인	최근 12개월동안 마약/본드를 흡입한 적이 있나요? 1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예=1, 아니오=2
	흡연 및 마약/본드 흡입		
	평소 체감 행복 지수	일상 체감 행복 정도에 대한 4점 리커트 응답 방식	1=매우 행복, 대체로 행복 2=별로 행복하지 않음, 전혀 행복하지 않음

(계속)

(계속)

변수	사용 변수	측정 방식	조작화
유대 변인	부모와의 친밀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관계, 시간 공유 정도, 상호 이해 정도, 신뢰 정도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 후 평균값 사용
	학교 선생님과의 친밀도	지난 학교 선생님과 사이 및 신뢰 정도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 후 평균값 사용
	친한 친구와의 친밀도	응답자가 현재의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자괴감, 불만감, 고립감, 분노, 무관심 등 부정적 감정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 후 평균값 사용 (평균값이 높을수록 낮은 친밀도 의미)
독립	성적	2014 년 2 학기 기말 기준 반 등수	2014 년 2 학기 기말 기준 등수를 백분위수로 환산
	학교 변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최근 1 년간 학교폭력을 직접 당한 적이 있나요? 최근 1 년간 학교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경험이 있나요?	예=1, 아니오=2 예=1, 아니오=2
	스트레스 변인 부모 스트레스	부모의 성적 담달과 지나친 간섭, 부모와의 의견 충돌 및 대화 불통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스트레스군의 변별성 확인 후 요인점수 집계
스트레스 변인	학업 스트레스	학교 성적, 숙제나 시험, 대학 입시나 취업 부담, 공부에 대한 흥미 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친구 스트레스	친구로부터의 놀림 및 무시, 인정 결여, 친구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신변 스트레스	본인의 체중, 키, 외모, 용돈, 기호품 결여 등 일신상의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5 점 리커트 응답 방식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의 목표와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분석 역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향후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회귀분석과 달리 종속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특히 본 분석에서처럼 종속변수가 두 개의 측정 결과(예와 아니오)로 구성된 경우 이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라 한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1을 통해 이루어졌다.

IV. 결과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수만 포함된 경우의 -2LL값과 독립변수가 포함된 경우의 -2LL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Chi-Square값이 591.836 ($df=18$, $p<.001$)으로, 10대 중·고등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예측하는 본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모형적합

	Model Fitting Criteria	Likelihood Ratio Tests		
	-2Log Likelihood	Chi-Square	df	Sig.(p)
Intercept Only	3552.014			
Final	2960.178	591.836	18	.000

<표 6>에는 본 모델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측정하는 다양한 결과들이 나와 있다. 우선 Pearson Chi-Square는 유의 수준인 $\alpha=.05$ 보다 큰 .5의 유의 확률 값을 가짐으로써 본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선형회귀분석의 결정계수 R^2 에 준하는 Cox and Snell의

Pseudo R^2 , Nagelkerke의 Pseudo R^2 , 그리고 McFadden Pseudo의 R^2 의 값이 각각 .15, .24, 그리고 .17로 본 모델의 독립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의 분산 중 최대 24%를 설명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분석 모형의 적합도 및 Pseudo R^2

	Chi-Square	df	Sig.(p)	Pseudo R^2
Pearson	3538.422	3539	.500	
Cox and Snell				.155
Nagelkerke				.244
McFadden				.167

10대 중·고등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인 변인과 관련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들로는 성별, 일상 체감 행복 여부, 그리고 흡연 또는 마약 및 본드 흡입 여부가 있다.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게 통제됐을 때, 10대 남자 중·고등학생이 같은 또래의 여자 중·고등학생에 비해 자살충동을 느낄 승산(odds)이 .485배 작고,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 혹은 행복감을 갖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충동을 경험할 승산은 .415배 낮아졌다. 그러나 주 1회 이상 흡연을 하거나 최근 1년 동안 마약과 본드 등 신체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한 번이라도 접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충동을 느낄 승산은 각각 1.59배, 4.10배 증가하였다. 생리학적으로 본드를 흡입하면 시각과 촉각 및 청각 등의 감각이 왜곡돼 환각 상태가 유발되고 이를 장기간 흡입 시 폐와 뇌세포 파괴가 촉진돼 심할 경우 질식사해 이를 수 있게 된다.

본드 중독은 신체적 유해성 외에도 정신적으로 심각한 불쾌감 및 우울증을 유발하여 중독자들의 삶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꺾어버린다. 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도가 중독자들에게서 더 높게 발견된다. 실제로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 및 자살 행동을 조사한 김문두 외(2014)에 따르면 대조집단에 비해 자살 사고를 보고한 집단에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역	자살충동 변인	<i>B</i>	<i>S.E.</i>	Exp(<i>B</i>)
개인 변인	남성(준거: 여성)	-.723	.102	.485***
	저체중 BMI	-.091	.178	.913
	정상 BMI	-.110	.163	.895
	과체중 BMI (준거: 비만 BMI)	-.307	.221	.736
	일상 체감 행복 여부 (준거: 불행)	-.880	.121	.415***
	주 1 회 이상 흡연 여부 (준거: 아니오)	.464	.211	1.591*
	최근 1 년간 마약 및 본드 흡입 여부(준거: 아니오)	1.412	.556	4.102*
유대 변인	아버지와 친밀도	-.167	.056	.847**
	어머니와의 친밀도	-.161	.068	.851*
	선생님과의 친밀도	.107	.052	1.113*
	친구와의 친밀도	.119	.079	1.126
스트레스 변인	부모 스트레스 요인점수	.467	.050	1.596***
	신상 스트레스 요인점수	.264	.047	1.302***
	친구 스트레스 요인점수	.204	.048	1.226***
	학업 스트레스 요인점수	.407	.051	1.503***
학교 변인	최근 1 년간 학교폭력 피해 여부 (준거: 아니오)	.880	.275	2.410**
	최근 1 년간 학교폭력 가해 여부 (준거: 아니오)	.292	.338	1.339
	백분위 반 석차	.001	.002	1.001

* $p < .05$, ** $p < .01$, *** $p < .001$

유대 변인과 관련해서는 친구와의 친밀 정도를 제외한 부모님 및 선생님과
친밀도 모두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이 확인됐다. 먼
저 부모와 관련해 아버지, 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는 응답자들의 자살충동을 떨
어뜨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어머니와의 친밀도는 아버지와의 친밀
도에 비해 자살충동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와의 친밀
도가 1점 상승할수록 자살충동의 승산은 .851배 떨어지고 아버지의 경우 자살충

동의 승산은 .847배 떨어졌다. 선생님과 친밀도는 반대로 자살충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과 친밀도가 1점 높아질수록 자살충동의 승산은 1.113배 증가하였다.

학교 변인과 관련해서는 학교 폭력, 특히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만이 자살충동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학교 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충동의 승산이 2.4배 증가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 중에서는 마약 및 본드 등 유해물질의 남용과 함께 자살충동을 자극하는 또 다른 주요 위험 변인인 셈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폭력의 경험만으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해 정작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피해자만큼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만약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피해자만큼 괴로워한다면 가해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충동의 승산비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변인과 관련해서는 부모, 학업, 친구, 그리고 신상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10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부추기는 것이 확인됐다. <표 4>의 변수 조작에서 설명하였듯이 스트레스 변인은 먼저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공통 차원, 즉 유사 스트레스군으로 묶고 여기서 산출되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표 8>은 스트레스 요인을 구성하는 17개 문항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로 추출하고 Kaiser 정규화가 있는 이퀘맥스(equamax with Kaiser normalization)방식으로 회전했을 때 얻어진 결과이다. 17개 문항은 총 4개의 차원, 즉 4개의 스트레스군으로 집약되며 각각의 스트레스군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4가지 주체, 즉 부모, 학업, 친구, 그리고 신상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스트레스 차원이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야기하는 영향력을 요인점수로 측정한 결과,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자살충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살충동의 승산은 1.59배 증가하였고, 학업 스트레스는 1.50배, 신상 스트레스는 1.30배, 그리고 친구 스트레스는 1.22배 자살충동의 승산을 증가시켰다.

<표 8> 요인분석 결과

	Component			
	부모 스트레스	신상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스트레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47			
스트레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16			
스트레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90			
스트레스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647			
스트레스 15)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63		
스트레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88		
스트레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86		
스트레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685		
스트레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31		
스트레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51		
스트레스 6)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802	
스트레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784	
스트레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760	
스트레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87	
스트레스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93
스트레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54
스트레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75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Equa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Rotation converged in 7 iterations.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 7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10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됐던 다양한 자살충동 자극 요인들을 정리하였고 여기서 공통으로 언급된 4가지 변인들-개인, 유대,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변인-에 상응하는 항목들을 설문자료에서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개인 변인 중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살충동의 위험 정도가 달랐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살충동에 더 노출된 것이 확인됐고, 평상시 행복을 느끼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해 자살충동의 위험도가 줄어들었다. 또한 흡연 또는 마약 및 본드 흡입과 같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살충동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유대 변인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 관계는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위험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선생님과 친밀도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살충동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친구와의 친밀도는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 변인 중에서는 오직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자살충동 위험도를 높이는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감추고 지내다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때는 이미 피해 학생들 스스로 심각한 우울증과 후유증을 앓고 있어 피해 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지만 정작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피해 학생만큼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변인 중에서는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자살충동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모가 야기하는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위험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학업 스트레스, 신상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스트레스 순으로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자극하는 주요 위험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본 연구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학업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 위험도를 높이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는 이상 학업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학업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인 셈이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 사이에서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을 할 주체는 바로 부모이다. 그러나 완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모가 오히려 10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면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관건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10대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지금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마약 및 본드와 같은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마약과 본드의 흡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흡입자의 신체 건강을 해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만들지만, 마약과 본드 중독은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착란과 우울증을 수반하여 자살충동 위험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학생들의 유해물질 입수경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파악과 차단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유해물질을 흡입하려는 학생들의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대영. 2014.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세한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강주현·신태수. 2015.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26-50.
- 구차순·김동환. 2013.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225-256.
- 김경미·염유식. 2015.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자살충동: 평일/주말 수면시간 효과에 대한 성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314-325.
- 김문두·정영은·홍성철·이창인·곽영숙·김현주·박원명·윤보현·신지현·현미열. 2014. “한국 고등학생들의 자살 생각 관련 요인.”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5(2): 85-89.
- 김미예·김정미. 2013.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요인.” 《청소년학연구》 20(12): 267-293.
- 김보영·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 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간호과학회》 39(5): 651-661.
- 김정란·김혜신. 2014.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2): 310-333.
- 남영옥. 2013. “자살 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20(11): 283-304.
- 라현진·박길섭·도현진·최재경·조희경·권혁중·조동영·문석우. 2006.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의학회지》 27: 988-997.
- 문대근·이진주·이종각·김정민·문수백. 2013. “청소년의 자살 생각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 그리고 우울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3): 93-112.
- 박순희·양정남·최은정. 2015.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 생각 간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301-323.

박은옥. 2008.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3): 465-473.

송인한·권세원·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99-223.

신미옥. 2014. “학교스트레스 및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해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여지영·박태영. 2013.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21-145.

이흥직. 2012. “고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연구》 20(3): 139-148.

정다솜.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주연·박재연. 2015. “청소년 자살시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자살시도 이전 단계, 자살시도 단계, 자살실패 이후 단계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275-305.

최인재.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219-243.

통계청. 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통계청.

통계청. 2015. “2014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청소년건강인식조사 보도자료.” 한국건강증진재단.

Blakemore, S.J., S. Burnett, and R.E. Dahl. 2010. “The Role of Puberty in the Developing Adolescent Brain.” *Hum Brain Mapp* 31(6): 926-933.

Gould, M.S., T. Greenberg, D.M. Velting, and D. Shaffer.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Keane, E.M., R.W. Dick, D.W. Bechtold, and S.M. Manson. 1996. “Predictive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among American India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6): 735-47.

- Lange, H.R. 2003. "Elder Suicide: A Selective Guide to Resourc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1(2): 175-184.
- Lee, J.E, H.S. Choi, M.J. Kim, C.G. Park, and D.S. Shin. 2009. "Anger as a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in Middle-School Students in Korea: Gender Difference in Threshold Point." *Adolescence* 44(174): 433-446.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Portes, P.R., D.S. Sandhu, and R. Longwell-Grice. 2002. "Understanding Adolescent Suicide: A Psychosocial Interpretation of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Factors." *Adolescence* 37(148): 805-814.
- Reinherz, H.Z., J.L. Tanner, S.R. Berger, W.R. Beardslee, and G.M. Fitzmaurice. 2006.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s Predictive of Psychopathology, Suicidal Behavior, and Compromised Functioning at Age 30."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7): 1226-1232.
- Somerville, L.H., R.M. Jones, and B.J. Casey. 2010. "A Time of Change: Behavioral and Neural Correlates of Adolescent Sensitivity to Appetitive and Aversive Environmental Cues." *Brain and Cognition* 72(1): 124-133.

<접수 2016/02/25, 수정 2016/07/07, 게재확정 2016/07/25>